

전체 주제:
생명에 속한, 생명에 의한 주의 회복

메시지 1

생수의 원천

성경: 렘2:13, 시36:8-9, 요4:14, 7:37, 계22:17

- I.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원천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렘2:13.
- A. 하나님께서 그분의 경륜 안에서 갖고 계신 의도는 그분의 선민의 누림을 위해 그들을 만족시키는 생수의 원천, 근원이 되시는 것이다.
1. 이러한 누림의 목표는 하나님의 증가, 하나님의 확대인 교회를 산출하여 그분을 표현하는 그분의 충만이 되게 하는 것이다—렘1:22-23.
 2. 하나님은 그분의 선민에게 생수의 원천이 되셔야 한다. 그것은 그분에게 경륜이 있고, 그분의 경륜은 그분 자신을 위한 배필, 신부를 산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요3:29상, 계19:7-8.
 3. 하나님의 경륜은 그분 자신을 생수로서 분배하여 그분의 표현을 위한 그분의 증가, 그분의 확대를 산출하는 것이다—골2:19.
 4. 생수의 원천이신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고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다. 우리 안으로 분배되신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분을 표현하기 위한 그분의 증가가 되게 할 수 없다—요4:13-14, 7:37, 계22:17.
 5. 하나님의 의도는 그분의 선민에게 모든 것이 되시어 그들이 모든 것에 있어서 그분을 의뢰하고 의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들이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분배하심을 받을 것이다—렘17:7-8.
- B. 하나님의 의도는 그분 자신을 사람의 만족으로서 사람 안으로 분배하시어 하나님께서 확대되시는 것이었으나, 사람은 신실하지 못하고 부정하게 되었고 우상들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다—렘2:13.
1. 아담은 생명나무를 버리고 다른 나무—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로 돌아섬으로 타락했다—창2:9, 16-17, 3:1-13.
 2. 이스라엘은 생수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아닌 다른 근원으로 돌아섬으로 타락했다. 이 다른 근원은 웅덩이로 상징된다—렘2:13.
 3.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성경에 따르지 않은 모든 가르침과 실행이 우상이다—요일5:21.
 4.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즐거움과 오락을 위해 일종의 금송아지 우상과 같은 것을 숭배하고 있다—출32:7-29.
- C. 죄란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자손이 한 것이었다—렘2:13.
1. 그들은 그들의 공급을 위한 생수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버렸다.
 2. 그들은 자신의 의견에 따라 자신의 누림을 위해 스스로 어떤 것을 이루려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였다.

- D. 이스라엘은 그들의 신실함을 지키기보다 변절하였다—렘2:19.
1. 변절은 하나님의 길을 떠나 다른 길을 취하여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따르는 것이다—행9:2, 18:26, 뱀후2:2, 15, 21, 유11.
 - a. 변절이란 하나님을 따르는 바른 길에서 벗어나고 빗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 b. 변절이란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을 빙자하여 자신을 위해 어떤 것을 하는 것이다.
 2. 단 지파의 변절은 분열적인 경배의 중심을 세운 것이었다—삿18:30-31, 17:9-10, 왕상12:26-31, 왕하10:29.
 - a. 구약의 역사에서 단 지파가 분열적인 경배의 중심을 세운 것보다 더 죄악되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더 많은 손상을 준 것이 없었다.
 - b. 단 지파의 변절의 근원은 다른 지파들을 관심하지 않은 데 있다. 몸의 다른 부분을 관심하지 않는 것이 변절의 근원이다.

II.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시36:9상.

- A. 주의 회복은 먼저 생명의 문제를 회복하는 것이다—요일1:1-2.
- B. 신성한 생명은 하나님의 가장 으뜸 되고 기본적인 속성으로 여겨질 수 있다—엡4:18, 요5:26, 요일5:11-12, 롬8:2.
1. 하나님의 생명의 신성하고 영원한 본성에 의하면 하나님의 생명은 유일한 생명이며, 오직 하나님의 생명만이 생명으로 간주될 수 있다—요1:4, 10:10하, 11:25, 14:6.
 2. 생명은 하나님의 내용이며 하나님에게서 흘러나옴이다. 하나님의 내용은 하나님의 존재이고, 하나님의 흘러나옴은 생명이신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것이다—엡4:18, 계22:1.
 3. 생명은 그리스도이고, 생명은 우리 안에 사시며 우리에게서 살아 나타나신 그리스도이다—요14:6, 골3:4, 갈2:20, 빌1:21상.
 4. 생명은 성령이다—요14:16-17, 고전15:45하, 롬8:2, 고후3:6.
 5. 생명은 우리 안으로 분배되시어 우리 안에 살고 계시는 삼일 하나님이다—롬8:10, 6, 11.
- C.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생명과 존재의 원천, 근원으로 취하기를 원하신다—렘2:13, 시36:9상.
1. 하나님께서 그분의 경륜 안에서 갖고 계신 의도는 그분의 선민을 위해 그들에게 생수의 원천, 근원이 되시는 것이다.
 2.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길의 근원이심을 보여준다. 성경에 있는 원칙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민이 그분 자신 아닌 다른 어떤 것도 근원으로 취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롬11:36, 고전8:6, 마15:13.
- D. 삼일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우리 존재 안으로 분배하시기 위해 과정을 거치고 완결되었다—요7:37-39, 롬8:11.
1. 하나님의 경륜은 그분 자신을 우리 존재 안으로 분배하시어 우리의 존재가 그분의 존재로 조성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신성한 생명으로서 우리 안에 넣으심으로써만 성취될 수 있다.
 2.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생명으로서 우리 안으로 분배하심으로 그분의 경륜을 성취하고 계시는데, 이는 그분이 영원토록 그분 자신의 한 단체적 표현을 얻으시기 위한 것이다—계21:9-10, 22:1.
- E.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배필을 통해 그분의 표현을 갖는 그분의 경륜을 성취하기 위해 증가되실 수 있도록, 생수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마셔야 한다—렘2:13, 고전12:13.
1. 우리가 생수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마실 때 그분은 우리와 하나 되시고 우리는 그분과 하나 된다—시36:8-9.
 2. 우리가 하나님을 마실수록 그분은 더욱더 우리와 하나 되시고, 우리는 더욱더 그분과 하나 되고 그분의 생명과 본성으로 조성된다.

2003년 추수감사절 특별 집회 표어

하나님께서 그분의 경륜 안에서 갖고 계신 의도는
그분의 선민을 만족시키는
생수의 원천이 되시어
그분의 표현을 위해
그분의 증가인 교회를 산출하시는 것이다.

생명나무를 먹는 것,
즉 우리의 생명 공급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교회 생활 안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야 한다.

주의 회복은
우리 속으로 뿌려진 생명의 씨인 그리스도 자신으로서
그리스도의 확대인
하나님의 왕국으로 발전된다.

이기는 이들은
그 영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귀를 갖고
그들의 영 안에 삶으로
하나님의 건축인 교회를 위해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누린다.

© 2003 Living Stream Ministry

저작권 소유

본 출판사의 허락 없이 사진 복사나 녹음이나 정보 사용, 수정 등 도안, 전자,
기계상의 어떤 형태나 어떤 수단으로도 복사하거나 전수할 수 없습니다.

전체 주제:
생명의, 생명에 의한 주의 회복

메시지 1

생수의 원천

성경: 렘2:13, 시36:8-9, 요4:14, 7:37, 계22:17

주여, 우리가 오늘 밤 다른 어떤 것을 하기 전에 참으로 당신을 접촉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보지 못하였으나 당신을 믿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보지 못하였으나 우리의 온 존재를 다해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임마누엘이시므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여, 당신이 사람이 되신 것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당신은 영원히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으로서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죄의 육체 안에 타락되었지만, 당신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주여, 당신이 태어나셔서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이 자리나시고,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이 가난한 가운데 사시고 목수로서 일하신 하나님-사람 생활을 인하여 당신을 경배합니다. 당신만이 이 땅에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걸어가신 분이셨습니다. 당신은 항상 자신을 부인하셨고, 당신은 결코 당신 자신의 말을 하신 적이 없고, 자신의 영광을 구한 적이 없으시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셨으며, 오, 당신은 항상 그분을 표현하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당신을 경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당신의 모든 것을 포함한 죽으심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당신이 죽음으로 마귀를 떨하신 사실을 믿습니다. 마귀는 이곳에 있지 않고 불 못에 있습니다. 당신은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떨하셨습니다. 당신은 당신 안에 있는 신성한 생명을 해방하셨습니다. 주여, 당신의 능력 있는, 생명을 주는 부활을 찬양합니다. 당신은 부활하신 하나님-사람으로서 영광 안에 계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나 당신은 또한 지금 우리의 영 안에 계시는 생명 주는 영이십니다. 오, 당신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당신을 찬양합니다! 당신은 한 인격이시오, 생명이십니다. 우리가 당신께로 돌이킵니다. 주여, 우리가 모든 외적인 것로부터, 공기 같은 영이신 내주하시는 그리스도께로 돌이킵니다. 주여, 생명의 원천으로 돌이킵니다. 주여, 흘러 나오소서. 당신 속에서 우리 안으로 흘러 들어오시고, 우리를 씻어 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기름 바르시고, 당신 자신으로 채워주소서. 당신의 단체적인 표현을 위해 우리를 당신과 똑같이 만드소서. 우리가 단체적으로 헌신합니다. 우리는 단지 좋은 시간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익을 위하여, 주의 회복을 위하여 여기 있습니다. 주여, 우리는 당신의 말씀을 향해 열린 사람들로서 여기 있습니다. 당신의 말씀을 하소서. 당신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주여, 당신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당신은 생명 주는 영이십니다. 아멘!

한 7-8 개월 전부터 한 부담이 유기적으로 발전되었는데, 그것은 영 안에, 생명 안에 있는 것으로서 우리가 '주의 회복의 유일함'이라고 부르는 것이었다. 그 부담이 분명해지면서 우리가 믿고 해석하고 이해한 바가 교통에 의해 확증되었다. 우리는 최근에 그에 따라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의 훈련을 런던에서 가질 때에 주의 회복의 유일함에 관한 교통을 나누었다. 그것은 제1부의 말씀으로서 다음에 계속 이어지는 것이 있다는 의미였다. 그것은 아마 내년 아마 4월에 계속될 것이다.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것은, 주의 회복은 오늘날의 종교인 기독교의 일부가 아니라는 것이다. 지방 교회들과 종교적인 기독교 사이에는 간격이 있다. 우리에게는 화목시킬 수 없는 차이가 있다. 종교적인 조직이 되어 버린 기독교와 우리는 화목

될 수 없다. 히브리서 13장 13절 말씀의 원칙에 따라 오늘날의 종교적인 기독교는 하나의 진영이 되어 버렸다. 참된 의미에서 주 예수님께서서는 영문 밖에, 진 밖에 계시 분이다. 그분께 오기 원하고, 그분을 추구하고, 그분에게 목마르고, 그분에게 굶주린 사람들, 그분을 극도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분께로 나아오되 영문 밖으로, 진영 밖으로 나아 와야 한다. 진영 밖에 주의 회복이라는 장막이 있다. 이것이 바로 회막이다.

주의 회복은 유일한 것이다. 성경이 하나이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듯이 회복은 하나이다. 이것은 오직 하나의 종류일 뿐이다. 모든 형제 자매들, 나이가 많은 적든 중년 층이든, 처음 들어온 사람이든 오래된 사람이든, 모든 성도들이 추측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주의 회복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그 본질과 본성과 실질과 내용과 실행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우리는 주의 회복이 진리에 있어서 유일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완전한, 신성한 계시를 어떤 빛나감이나 왜곡됨 없이 받아들인다. 주의 회복은 모든 것을 포함한 그리스도의 간증을 지남에 있어서 유일하다. 주의 회복은 하나님의 경륜을 강조함에 있어서 유일하며, 주의 회복은 영원한 생명을 중심 삼는 데 있어서 유일하다. 주의 회복은 바벨론과 타협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의 입장에 있어서 유일하다. 주의 회복은 신성한 영과 사람의 영이 연합된 영에 초점을 맞추는 데 있어서 유일하다. 주의 회복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음으로 기꺼이 오늘날의 이기는 이들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을 산출함에 있어서 유일하다. 그 이기는 이들이 예루살렘 가운데 있는 시온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새 예루살렘을 완결할 것이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주의 회복이 왜 유일한가에 대한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조망을 준다.

오늘 집회로부터 시작해서 이번 주말에 우리는 주님의 인도를 받아 주의 회복에 초점을 맞추어 우리의 주의를 집중할 것이다. 주님은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무엇을 강조하는가를 관심하신다. 이번 주말에 우리가 다시 한 가지를 선택하여 영 안에서 생명 안에서 유기적으로 함께 교통하고자 하는 것은, 새로워진 생각이 아니고서는 깨달을 수 없는 것인데, 교통 안에서 입증된 것이다. 나는 여기 몸 안에 있는 몸의 한 지체로서 확신을 가지고 서서 말한다. 동역자들이 지난 이틀 동안 기도하고 교통함으로 입증한 것은 '생명의, 생명에 의한 주의 회복'이라는 이 주제가 주님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부담을 주어서 이번 주말에 함께 교통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특별 집회에서 우리는 여섯 번의 메시지를 통해서 '생명의, 생명에 의한 주의 회복'이라는 전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누릴 것이다.

생명이 주의 회복의 본성이라고 말하는 것은 참된 것이다. 사실이 그러하다. 주의 회복은 생명에 속한 것이고 생명이 그 본성이다. 회복은 생명 자체이다. 생명이 반드시 회복의 첫 번째 것이 되어야 한다. 신성한 생명이 믿는 이들 안에 이해되고 체험되는 것이 회복이다. 요한일서 1장 1절과 2절에서 영원 안에 하나님 안에 계시던 것은 생명 자체였다.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 자체가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기독교의 역사는 타락함으로 생명을 무시하고, 생명을 낮게 평가하고, 생명을 경시하고, 생명을 잘못 적용하게 되었다. 생명이 없이 주님의 축복을 구한다. 그러나 생명이 없으면 하나님의 경륜도, 하나님의 목적도, 교회도, 그리스도의 표현도, 그리스도의 몸도 없고, 주의 회복도 없고, 신부도, 왕국도, 새 예루살렘도 없다.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체험 가운데 생명이 회복 되는 데 달려 있다.

주님의 느낌은, 내가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데, 주의 회복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이 생명 자체에 대한 개인적인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리가 체험하지 못했던, 어떤 프로그램이 된 그런 현상적인 것에 대한 회복이 아니라, 그저 즐겁게 모여서 좋은 시간을 갖고자 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우리는 생수의 강 속에 반드시 뛰어들어야 하지만, 이 생명은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것이다. 그것은 분배하심과 성숙과 하나님의 건축과 관련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개인적으로나 단체적으로나 이 모든 것을 포함한, 생명에 속한, 포괄적인 회복이 필요하다. 계시록 2장, 3장의 순서에 의하면 이기는 이들의 첫 번째 보상은 바로 생명나무를 하나님의 낙원에서 먹는 것이다.

전체 주제의 또 한 부분은 생명에 의한 회복이다. 그것은 회복이 생명의 수단에 의해 전진하고 진보한다는 의미이다. 이 두 가지는 다 무엇을 말하는가? 주의 회복은 지식이나 능력이나 성스러움이나 성격 개조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말한다. 그것은 소위 '영성'이라는 것이 발전하여 신령하게 되었으나

진정한 영성이 아니라 괴상하게 되어버린 그런 영성에 의해 이루어지는 회복도 아니다. 이 메시지의 모든 말씀, 이 특별 집회의 모든 단어, 이 특별 집회의 모든 방면은 신성한 삼일성의 계속적인 분배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분배하심으로 오는 그 분배를 의지하는 것이어야 한다. 우리가 순수한 양심으로 간증하는 것은, 우리는 이 말씀을 교통할 때 타고난 재능을 의지하지 않고, 어떤 은사를 의지하지 않고, 어떤 지식을 의지하지 않고, 어떤 과거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현재의 삼일 하나님께서 신성한 생명으로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 흐르시는 그 흐름을 의지하여 교통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우리는 가르치는 자가 더 큰 심판을 받는다는 그 말씀에 따라 엄청난 책임을 지니고 있다. 우리는 우리가 전하는 모든 말씀에 대해 계산할 날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우며 떨며, 영리한 생각을 의지하지 않고 말한다.

그러나 듣는 사람들에게도 책임이 있다. 그 영은 교회들에게 말씀하시고 있고 말씀하실 것이다. “귀 있는 자는...” 이것은 매우 개인적인 말이다. “귀 있는 자는 그 영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이다.” 여러분은 이러한 말이 그 영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안다면 기도해야 한다.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이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담겨 있다. 성육신의 원칙에 따라, 과정을 거치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이 보배로서 우리 안에 계신다. 그분은 이런 하잘 것 없는 질그릇을 통해 말씀하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러므로 주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어 정결케 된 귀, 할례 받은 귀, 기름부음 받은 귀, 또한 열려 있는 귀를 가지고 듣게 하시기를 바란다. 여러분이 그러한 귀를 가지고 있다면 당신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어떤 말씀만 골라가며 듣지 않을 것이다. 또한 여러분은 어떤 실수를 찾아가며 비판적으로 듣지도 않을 것이다. 우리 형제들은 그러한 것을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전히 말씀하시는 영이시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여기 서 있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분이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라며, 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영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라며 여기 서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여 우리의 존재가 되게 하고 그 말씀을 기도로 주님께 다시 돌려 드리고 서로서로 선언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증홀인가!

메시지 1의 제목은 ‘생수의 원천’이다. 나는 이 표현을 사랑한다. 이것은 예레미야 2장 13절의 말씀에서 온 것이다. 하나님 자신이 생수이실 뿐만 아니라 생수의 원천이시다. 이 개요와 이 말씀과 이 모든 재료들은 여러 메시지에서 발췌한 것이다. 내가 여러분에게 이 메시지를 어떻게 추구해야 될지 그 접근할 수 있는 길에 대한 암시를 주겠다. 중국 음식에 열 다섯 가지나 스무 가지 음식이 나오는 잔치가 있다. 이것을 개화된 방식으로 하나하나 자세히 자세히 먹어가는 것이다. 먹을 때 각 음식을 조금씩 맛보면 다 먹고 나서 배가 아주 부르게 된다. 이것을 다 누리고 소화시키려면 여러 달이 걸릴 것이다. 이 특별 집회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다 소화하려면 수년이 걸릴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빨리빨리 누리기를 원치 않고, 갑작스럽게 어떤 변화가 있기를 원치 않는다. 그런 것은 생명에서 오는 변화가 아니다. 한 메시지, 한 메시지를 한 음식, 한 음식을 먹듯이 한 입씩만 먹어보는 것이다. 해삼 요리라든가 닭날개 요리라든가 여러 가지 요리가 있지만 조금씩만 먹어 보라. 나는 이러한 요리를 상당히 오랫동안 해 왔다. 대부분의 요리들이 아주 맛이 좋은데, 한 두 군데는 쓴 나물이 섞여 있어서 맛이 씹쌀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렇게 쓴 나물도 몸에는 좋은 것이다. 언제든지 사람들이 “이거 몸에 좋은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것이 맛은 아주 안 좋으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러나 그렇게 쓴 것이 우리의 몸에는 좋은 것이다.

이 메시지를 보면 로마 숫자가 들어 있다. 그 로마 숫자에 들어가기 전에 입맛을 돋구는 전채를 여러분에게 제시하겠다. (나는 메시지 끝나고 나서 선언하고 기도하고 광고할 시간을 다 고려할 것이다. 어쨌든 우리가 시간을 관심해야 하지만 이 개요 전체가 흐르게 하자.) 첫 번째로 내가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전채는 바로 생명에 관한 열 네 가지 단어이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커다란 그림을 제시할 것이다. 나중에 여러분은 이러한 묘사에 대하여 주님께 감사드릴 것이다. 이것이 나머지 집회의 요리에 의해서 발전되기를 원한다. 어쨌든 여러분이 이 깊은 숲 속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연한 가지의 이파리에 앉아 있는 작은

무당벌레에만 빠지지 않도록 전체적인 그림을 보여주기 위해서 열 네 가지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것은 생
명에 대한 열네 가지 묘사이다.

1. 생명은 하나님의 으뜸되는 기본적인 속성이다.

2. 생명은 하나님 자신이다.

3. 생명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목적을 이루시는 수단이요 그분의 회복을 수행하시는 길이다.

(애나하임에서 내일 아침에 전시간 훈련에서 이 메시지를 웹 캐스트로 보는 사람들은 이 열 네 가지를
외워야 된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이 되기 바란다.)

4. 우리에게는 우리의 생명과 생명 공급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5. 우리는 생명의 원칙에 의해 살아야 한다.

6. 우리는 성숙에 이르도록 생명 안에서 자라야 한다. 여러분과 나인 우리는 성숙에 이르도록 생명 안
에서 자라야 한다.

7. 우리는 생명 안에서 구원되어야 한다.

8. 우리는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려야 한다.

이때 엘리베이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집회 끝나고 방으로 돌아갈 때 얼마나 기다려야 할지
모르지만, 그 때가 바로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는 것을 적용할 때라는 것을 기억하라.

9. 우리는 생명을 공급해야 한다. 메시지를 전하는 여섯 형제들만이 아니라 우리가 다 생명을 공급해야
한다.

10. 우리는 일보다 생명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우리는 이번 주말에 함께 생명을 누리는데 이틀이어야
한다. 일하는 것보다 생명을 누리는 이들로써 여기에 있기 원한다. 그러므로 우리, 일보다 생명을 더 주의
하자.

11. 생명은 과정을 거치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세 부분으로 된 존재 안에 분배되심이다.
이것이 얼마나 좋은가? 이것이 생명에 속한 주의 회복이다. 생명은 과정을 거치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
이 세 부분으로된 우리 존재 안에 분배되신 것이다. 사람이 영혼과 몸으로 사람이 되어 있다는 이분론을
믿고 있는 사람은 아직도 개혁 신학의 영향 아래 있기 때문에 이 말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지 모르지
만, 여러분의 영을 사용하여 우리는 영과 혼과 몸의 세 부분으로 된 사람이라는 이 말씀을 받기 바란다.

12. 생명은 단순하다. 이것이 가장 간단한 말이다. 우리의 진리는 높고 심오하고 우리의 온 존재를 사용
하여 붙잡아야 할 그러한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생명의 실행에 있어서 우리는 어린 아이들과 같다. 우
리는 “주 예수여, 당신을 사랑합니다. 오, 주 예수여!” 라고 말한다. 우리는 성경을 기도로 읽는다. 그러므
로 단순해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당신에게 박사학위가 두 개 있을지 모른다. 그래도 단순해지라.

13. 우리 속에 있는 신성한 생명은 몸의 생명이다. 몸-생명이니, 지체-생명이 아니다.

14. 우리에게는 기본적인 내적 전환, 생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우리는 바벨론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하나로 모였다. 우리에게는 그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제 예루살렘 안에서 우리에게 생명으로의 근본적인 내적 전환이 필요하다. 우리는 주님의 축복을 의지
하면서 주님이 이러한 개인적인 근본적이고 내적인 전환을 도와주시리라 믿는다.

I.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원천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
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렘2:13.

A. 하나님께서 그분의 경륜 안에서 갖고 계신 의도는 그분의 선민의 누림을 위해 그들을
만족시키는 생수의 원천, 근원이 되시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부른 찬송에서 주님을 누리지 않았는가? 이 땅이 주는 모든 천한 축복에서부터 우
리는 주님 자신께로 다시 돌이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의도를 갖고 계신다. 여러분은 그분이

당신 속에서 그것을 이루게 하고 싶지 않은가? 그분은 당신 안에서 원천이 되기를 원하신다. 그분은 다만 물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강이 되는 것만으로도 만족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유일한 근원, 즉 원천이 되기를 원하신다. 그 근원은 얼마나 풍성한지! 아버지는 원천이시요, 그분의 모든 부요를 사람이 누리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천이 되시기를 기도해 본 적이 있는가? 나는 여러분이 지금 그러한 중점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요청한다. “주여, 내 안에서 원천이 되소서.” 라고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원천이 되기를 원하시는 목표가 있다는 것을 보아야 한다. 그 목표는 그분 자신의 단체적인 표현으로서, 분배하심에 의해 산출되는 것이다. 이 원천은 흘러가서 샘이 되고, 샘은 강으로서 흘러간다. 그것은 우리 안으로 분배되어 한 단체적인 표현을 산출하는데, 그것은 삼일 하나님의 단체적인 표현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요, 하나님의 집이요, 그리스도의 신부요, 하나님의 왕국이요, 새 예루살렘이다. 주님은 단체적인 하나님-사람이라는 그 신부와 결혼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은 신격 외에는 모든 것에 있어서 그분과 똑같은 신부이다. 그 신부는 몸의 건축을 통해 산출되며, 그 건축은 바로 신성한 분배하심의 산출물인 것이다. 당신 자신의 개인적인 영성만을 관심한다면, 당신 안의 분배하심은 상당히 제한될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믿음 안에 서서 “주여, 나는 당신이 내 안에서 원천이 되시어, 몸을 위해 내 안으로 분배되시어, 신부를 위한 군대를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 건축되어, 신부가 예비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만족을 위한 것이요, 당신의 마음의 갈망을 위한 것입니다. 주여, 당신 자신을 내 안에 분배하시어 당신의 마음의 갈망인 신부를 얻게 하소서.” 라고 기도한다면, 이것은 참으로 그분의 주의를 끌 것이다.

1. 이러한 누림의 목표는 하나님의 증가, 하나님의 확대인 교회를 산출하여 그분을 표현하는 그분의 충만이 되게 하는 것이다—엡1:22-23.

주의 회복 안에서 우리는 결코 목표 없는 무작정의 누림을 갖지 않는다. 그런 목표 없는 누림은 결코 진정한 누림이 아니라 다만 재미삼아 하는 유희와 오락이 될 것이다. 그것은 ‘누림’이라는 가장된 가면 아래 오는 재미스러운 것이 될 것이다.

2. 하나님은 그분의 선민에게 생수의 원천이 되셔야 한다. 그것은 그분에게 경륜이 있고, 그분의 경륜은 그분 자신을 위한 배필, 신부를 산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요 3:29상, 계19:7-8.

하나님은 그분의 선민에게 생수의 원천이 되셔야 한다. 그것은 그분에게 경륜(분배하심을 위한 계획)이 있고, 그분의 경륜은 그분 자신을 위한 배필, 신부를 산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모든 말씀들에는 그렇게 깊은 해석이 필요 없다. 여러분이 이것을 기도할 때 가장 큰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3. 하나님의 경륜은 그분 자신을 생수로서 분배하여 그분의 표현을 위한 그분의 증가, 그분의 확대를 산출하는 것이다—골2:19.

4. 생수의 원천이신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고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다. 우리 안으로 분배되신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분을 표현하기 위한 그분의 증가가 되게 할 수 없다—요4:13-14, 7:37, 계22:17.

나이든 사람들이 오늘 밤 일어나서, “내가 많은 것을 시도해 보았지만, 솔로몬처럼 많은 지위와 소유를 얻어 보았지만 오직 생수의 원천만이 나의 목마름을 해결하고 나를 만족케 할 수 있었다.” 라고 간증한다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겠는가! 그러나 주님은 또한 그런 성도들에 이어서 청년들이 신언하는 것을 듣기 원하신다. 인간적으로 그들 앞에 양양한 전도가 있지만,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떤 것도 나 자신을 만족

게 할 수 없다. 나는 그 어떤 명성도 원치 않는다. 스포츠나, 음악이나, 그 어떤 것도 나의 목마름을 해결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나는 나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참된 물이 되지 못할 것을 위해 나의 삶을 허비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선언을 청년들이 할 수 있다면 주님은 더 기뻐하실 것이다. 이 세상의 공허함을 보고, 이 생수가 참된 실재라는 것을 보고, 여러분이 아직도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이라 할지라도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그러한 불가역적인 전환을 함으로 그분을 나의 원천으로 취하는 그러한 순간이 필요한 것이다. 우리 안으로 분배되신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분을 표현하기 위한 그분의 증가가 되게 할 수 없다. 그분의 표현, 그분의 증가가 되는 것이 우리의 갈망이다.

5. 하나님의 의도는 그분의 선민에게 모든 것이 되시어 그들이 모든 것에 있어서 그분을 의뢰하고 의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들이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분배하심을 받을 것이다—렘17:7-8.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한다면 하나님의 분배하심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원천에 대한 간단한 조망이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B. C.를 볼 때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게 될 것이다.

- B. 하나님의 의도는 그분 자신을 사람의 만족으로서 사람 안으로 분배하시어 하나님께서 확대되시는 것이었으나, 사람은 신실하지 못하고 부정하게 되었고 우상들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다—렘2:13.

여기 처음으로 오신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확대된다는 이러한 표현이 이상하게 느껴질지도 모른다. 하나님 자신은 무한하시고 완벽하신 분이기에 때문에 확대되실 수 없고 확대되실 필요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그분 자신으로 채우심에 있어서 확대되시고 확대되실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럴 때 우리가 그분의 표현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의미로 이러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은 신실하지 못하고 부정하게 되었고, 우상들 때문에 원천인 하나님을 버렸다. 이러한 세계에 있는 우리에게는 우상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 사람들이 그 마음에 우상을 들였다.”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을 대치하는 것들, 원천이 아닌 다른 근원,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기쁨의 수단으로 취했고, 하나님 자신 아닌 다른 것을 사랑의 대상으로 가졌다는 것이다.

1. 아담은 생명나무를 버리고 다른 나무—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로 돌아섬으로 타락했다—창2:9, 16-17, 3:1-13.
2. 이스라엘은 생수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아닌 다른 근원으로 돌아섬으로 타락했다. 이 다른 근원은 웅덩이로 상징된다—렘2:13.

타락하는 것은 다른 근원으로 돌아서는 것이다. 타락한 사람들의 근원이 무엇인지 아는가? 그들의 근원은 그들 자신이다. 그들 자신의 마음이다. 그들은 자기나 다른 인간을 의지할지도 모른다. 우상 숭배라는 것은 이 우주 안의 유일한 근원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근원으로 돌아선 데서 시작된다. 주의 사역 안에서 우리는 어떤 것도 발명해 낼 권리가 없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을 근원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또한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의 마음에서 나온 분열시키는 어떤 것을 혁신적으 만들어낼 권리가 없다. 하나님께서 근원이 되시어 시작하신 것에는 몸이 반드시 반응해야 한다. 내가 원칙적으로 여러분에게 확신시켜주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하나님 아닌 다른 근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얼마나 깊이 신뢰하고 있는지 모른다. 우리는 얼마나 자아를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떠나 있는지 모른다. 우리에게는 이것 저것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터진 웅덩이를 얼마나 파고

있는지 모른다. 우리 찬송에 그런 가사가 있다. “내가 터진 웅덩이를 파 보았지만, 모든 물은 새나갔습니다. 그 물을 저축하려고 했지만, 그것은 다 쏟아져 나가며 나를 조롱했습니다.” 청년들이여, 당신이 추구한 그 모든 것들은 새어나가면서 찰흙처럼 당신을 비웃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우상과 같은 웅덩이를 판 결과이다. 그 모든 것은 터진 웅덩이로서 다 새어나가는 것이다. 생명의 원천은 은혜로서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지만, 웅덩이는 우리가 땀을 흘려 파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웅덩이는 물 한 방울도 저축할 수 없고, 우리는 아무 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마치고 싶은가? 물 한 방울 없는 터진 웅덩이로 마치고 싶은가? 여러분이 원천으로 돌아올 때, 당신은 다시 기도하고, 교통하고,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생수의 원천이 무엇인지 우리는 안다. 나는 이제는 터진 웅덩이를 거절하고 하나님 자신만을 생수의 원천으로 취한다.’ 그렇게 간증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다른 근원은 웅덩이로 상징되었다. 모든 것이 근원에 달려 있다. 근원이 유출을 결정하는 것이다. 근원이 운명을 결정한다. 주님은 마태복음에서, 천부께서 심지 않은 나무마다 다 뽑힐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많은 종교적인 나무가 미주에서 자라나고 있다. 그것은 다 뿌리가 뽑힐 것이다. 우리가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 자신의 근원으로 나무를 심는다면, 한동안은 무성하고 열매가 많을지 모르지만, 천부께서 심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뿌리째 뽑힐 것이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다.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라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유일한 근원으로 알아야 한다.

3.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성경에 따르지 않은 모든 가르침과 실행이 우상이다—요일 5:21.

그것이 바로 터진 웅덩이다.

이제 4.번에서 입에는 쓸지 모르지만, 여러분에게 아주 좋은 것을 교통하겠다. 계시록 10장에서 네 입에는 달지만 배에서는 쓰리라고 하신 말씀의 반대로, 여러분의 입에는 쓰나 배에는 단 것을 말하겠다. 이것은 듀리안이라는 과일처럼 냄새가 아주 지독하지만 맛은 좋다. ‘나를 사랑한다면 듀리안을 주지 마십시오.’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나는 이것을 교통해야겠다.

4.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즐거움과 오락을 위해 일종의 금송아지 우상과 같은 것을 숭배하고 있다—출32:7-29.

모세가 산 위에 있었을 때, 산기슭에 있는 백성들과 아론은 무엇을 했는가? 그 백성들에게는 애굽 사람들이 준 금이 있었다. 하나님의 의도는 그 금이 성막의 건축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백성중의 많은 사람들은 그 금을 사용해서 귀고리를 만들어서 자기 미화를 했다.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원칙, 자기 미화의 원칙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들이 그 모든 귀걸이를 빼어서 아론에게 주었고, 아론은 그것을 녹여가지고, 아주 좋은 기술과 고안으로 새겨 금 송아지를 만들었다. “이스라엘아, 이것이 너희를 인도하여 낸 신이다.” 라고 했을 때 그들은 모여서 일어나 뛰놀았다. 그들은 아주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그들은 집회를 했고, 경배를 한 것이다. 그것은 이교도의 우상 숭배를 한 것이 아니라, 구속된 백성으로서 그 우상을 가졌던 것이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오용됨으로 나온 결과이다. 아론은 모세에게 거짓말을 했다. “사람들이 신을 만들어 내라고 해서 내가 그냥 금을 불 속에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불 속에서 나왔다.” 그러나 아니다. 은사와 기술과 영리함과 지적인 기능이 있어야 그런 것이 나오는 것이다. 기독교의 역사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경배하는 그러한 역사이다. 그 금송아지로 인하여 모세는 그의 장막을 진 밖으로 따로 옮긴 것이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즐거운 시간을 갖는 것이다. “자 우리 함께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갖자. 우리 금송아지를 가져와서, 생생한 기구를 사용하여, 해비메탈 음악을 사용해서, 재즈 음악을 사용하여 즐거운 시간을 갖자. 우리 춤추고 놀며 뛰놀자. 금송아지의 원칙으로 놀아보자.” 이것이 우리 눈 앞에 벌어진 것을

우리는 많이 보았다. 거듭거듭해서 이러한 일이 있었다. 유흥과 오락의 목적으로 집회하는 것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보아왔는가! 그러나 나는 우리의 청년들에게 금송아지가 필요하다고 믿지 않는다. 그들은 젊고 그들에게는 그들의 역량에 알맞은 사역의 말씀이 필요하다.

라이프-스터디에서 이 형제님은 오늘날의 기독교를 말씀하셨다. 모세가 제시를 받고 있었을 때, 이스라엘은 산기슭에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고 있었다.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집회하였다. 주님을 누린다고 하면서 뛰놀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누림과는 커다란 거리가 있다. 이 특별 집회에는 어떤 오락도 없을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리에 죽은 듯이 앉아서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주님을 찬양하지도 않고 앉아 있으리라는 말은 아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을 해방해야 하나 우리의 육체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우리가 어떤 때 다른 곳에서 집회를 할 때, 주의 상 집회를 했는데, 많은 악기를 가지고 뛰놀며 행진하는 것을 보았다. 내가 너무 지나친 말을 하는지 모르지만, 그 집회에 빠져 있는 것은 금송아지 하나뿐이라는 것을 느꼈다. 펄펄 뛰면서 그렇게 춤출 때 그것이 주님을 기념하는 것인가? 그것이 주님의 상에서 주님을 기념하는 것이라고 느끼지 못했다. 형제 자매들이여, 우리 역사의 어두운 면을 반복하지 말라. 우리는 그것을 산기슭에 던졌다. 우리 좋은 땅에 가서 그 땅을 차지하자. 그 역사를 다시 반복하지 말자. 그것을 역사로 남게 하자.

어쨌든 이 요리가 너무 쓴 것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이 정도만 말하겠다. 그러나 내가 여기에서 고린도전서 라이프-스터디의 한 부분을 읽어주겠다. 고린도전서 라이프스터디 메시지 47에서 '우상 숭배자들이 됨'이라는 소제목 밑에 있는 부분이다. "오늘날 기독교의 많은 예배에 우상 숭배의 실행이 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러한 예배에 나오는 음악이나 드라마는 우상 숭배이다. 많은 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상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 그들이 예배하는 방식은 하나님이 보실 때 우상 숭배이다." 여기 중요한 중심이 나온다. "우리도 반드시 집회에서 악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주의해야 한다. 우리의 찬양은 경배를 위한 것이 되어야지, 재미를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집회에서 찬송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경배드리는 영이 있어야 한다. 우리의 찬송이 다만 유흥이 되어버린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이다. 교회 집회에서의 찬송은 절대로 어떤 놀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경배여야 한다." 금송아지를 위하여 생수의 원천을 버리지 말라. 음악적인 즐거움을 위하여 버리지 말라. 나에게서 어떤 의견이 없다. 어떤 악기를 사용해야 하는지 나는 모른다. 나는 이것을 율법적인 원칙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상 숭배의 어떤 것이 되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주님에 대한 진정한 누림에서부터 나온 찬송을 해야 한다. 우리가 이러한 찬송을 부를 때 참으로 주님을 만질 수 있어야 한다. 찬송가를 부를 때 영 안에서 부르고, 멜로디에 빠져서 우리의 혼이나 육체가 흥을 느끼게 불러서는 안 된다. "이제 나는 마셔 영원한 생수 달콤함 기쁨 넘쳐 흐르네..." 그 찬송을 부를 때 펄펄 뛰면서 땀을 흘리며 집회 장소를 행진하면서 손을 흔들면서 부르기보다 영을 사용하며 생수를 마시면서 불러야 한다.

C. 죄란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자손이 한 것이었다-렘2:13.

1. 그들은 그들의 공급을 위한 생수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버렸다.
2. 그들은 자신의 의견에 따라 자신의 누림을 위해 스스로 어떤 것을 이루려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였다.

원수는 결코 바뀌지 않는다. 그는 이것을 거듭거듭 우리에게로 가져오겠지만 우리에게서 그러한 것이 필요 없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진정한 누림으로 가져야 한다.

D. 이스라엘은 그들의 신실함을 지키기보다 변절하였다-렘2:19.

1. 변절은 하나님의 길을 떠나 다른 길을 취하여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따르는 것이

다-행9:2, 18:26, 벨후2:2, 15, 21, 유11.

- a. 변절이란 하나님을 따르는 바른 길에서 벗어나고 빗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 b. 변절이란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을 빙자하여 자신을 위해 어떤 것을 하는 것이다.

이제 단 지파의 예가 나온다. 단 지파는 그 땅에 정착할 곳을 찾다가 레위인을 고용하여 제사장을 삼은 미가의 새긴 신상을 빼앗아 가지고 와서 사람들을 죽이고 그곳에 경배의 중심을 만들었다.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의 지은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다. 이것이 그 배경이다.

2. 단 지파의 변절은 분열적인 경배의 중심을 세운 것이었다-삿18:30-31, 17:9-10, 왕상12:26-31, 왕하10:29.
 - a. 구약의 역사에서 단 지파가 분열적인 경배의 중심을 세운 것보다 더 죄악되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더 많은 손상을 준 것이 없었다.
 - b. 단 지파의 변절의 근원은 다른 지파들을 관심하지 않은 데 있다. 몸의 다른 부분을 관심하지 않는 것이 변절의 근원이다.

만약 우리가 생수의 원천으로 와서 그 생수를 누리다면, 그 삶은 유기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우주적으로 관심하게 할 것이다. 우리는 생명 안에서 몸을 관심하기 때문에 몸의 느낌을 주의할 것이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몸을 관심할 것이다. 그러나 단 지파는 자기 자신의 지파만을 위해서 다른 지파를 관심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것은 아담에게서,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기독교 역사에서 일어났었고, 우리 지방 교회들 안에서도 일어났다. 우리는 생수의 원천을 버리고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파는 일이 있을 수 있다. 주님의 영께서 내가 말할 수 있는 것 이상의 빛을 여러분에게 비추기 원한다.

II.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시36:9상.

내가 여기서 시편 36편 8절과 9절을 읽어 주겠다. “저희가 주의 집의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수로 마시우시리이다.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여기에서 또 전체를 제시하겠다. 나는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경륜 전체를 보게 된다. 생수의 원천으로부터 시작하여, 빛으로 이어지며, 주의 살진 것에 이어, 주의 집으로 마치는 것이다. 생명의 원천은 생명이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가리킨다. 생명의 원천은 생명이 하나님의 내용이라는 것을 가리킨다. 또 생명의 원천이란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의 흘러나옴이라는 것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생명은 하나님 자신이고, 생명은 하나님의 존재의 내용이며,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의 흘러나옴이다. 네 번째로 생명의 원천은 신성한 분배하심과 관련되어 있다. 이 원천은 분배하심을 위해 흐르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락의 강수를 마시므로 생명의 원천을 마시는 것이다. 생수의 원천에 대한 우리의 유일한 책임은 마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생명은 하나님의 내용이요, 하나님 자신이요, 하나님의 흘러나오심이요, 생명이신 하나님 자신의 분배하심이요, 그 생명의 원천은 우리가 마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내포한다. 빛은 생명에서 온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태초에는 생명이 빛을 가져왔지만, 발전 과정에 있어서는 빛이 생명을 가져오는 것이다. 우리가 생명의 영역 안에 있다면 빛을 볼 것이다.

생명은 살진 것, 즉 그리스도의 풍성과 관련되어 있다. 생명은 하나님 자신이요, 하나님의 내용이요, 하나님에게서 흘러나옴이요, 생명은 신성한 분배하심 아래 있고 우리는 그 생수의 강을 마시고 생명을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며 이 생명이 우리를 살진 데로, 그리스도의 풍성으로, 그 제물의 살진 것으로 인도한다. 또 생명은 우리를 하나님의 거처인 집으로, 그분의 단체적인 표현으로 이끈다. 생명은 모든 것을 포함한다. 회복은 하나님에 속한 것이요, 하나님에 의한 것이다. 생명은 하나님 자신이요, 하나님의 내용이요, 하나님에게서 흘러나온 것이요, 하나님의 분배하심이요, 하나님을 마심이요, 하나님의 빛을 얻음이요, 하

나님의 모든 풍성을 누림으로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이다. 그분이 우리에게 생수의 원천이 되신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경륜의 원천이 되신 것이다. 모든 것이 그분이다. 그분 자신이, 그분의 내용이, 그분의 흘러나옴이 우리에게 이를 때 우리는 그분을 마시고, 빛 비춤을 받고, 그리스도의 풍성을 취히 누리고, 이 모든 것이 집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원천이 집에 있다.

A. 주의 회복은 먼저 생명의 문제를 회복하는 것이다—요일1:1-2.

생명은 태초에 있었던 것이다. 생명이 주의 회복의 시작이다.

B. 신성한 생명은 하나님의 가장 으뜸 되고 기본적인 속성으로 여겨질 수 있다—엡4:18, 요5:26, 요일5:11-12, 롬8:2.

신학교의 많은 교과서에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방대한 책을 소장한 신학교 도서관에서 하나님의 속성에 생명을 언급한 교과서는 한 권밖에 없었다. 청교도 신학교에서 가르친 그 교과서에서 하나님의 신성한 속성에 대해 많은 페이지를 할애했지만 생명은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는 회복 안에서 신성한 생명이 하나님의 가장 으뜸 되고 기본적인 속성이라는 것을 선포한다.

B번 밑에 있는 중점들은 생명에 대한 정의를 우리에게 제시한다.

1. 하나님의 생명의 신성하고 영원한 본성에 의하면 하나님의 생명은 유일한 생명이며, 오직 하나님의 생명만이 생명으로 간주될 수 있다—요1:4, 10:10하, 11:25, 14:6.

요한 일서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그 생명이 없다는 것을 말한다. 여러분의 생명은 진짜 생명이 아니다. 수케(psuche)와 비오스(bios)는 참 생명이 아니요 조에(zoe)만이 참 생명이다. 참 생명인 그 생명을 붙들자.

2. 생명은 하나님의 내용이며 하나님에게서 흘러나옴이다. 하나님의 내용은 하나님의 존재이고, 하나님의 흘러나옴은 생명이신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것이다—엡4:18, 계22:1.

“위대한 흐름 하나님 매 시대 거쳐 흘렀네...” 이 찬송을 이번 주말에 누리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흘러나오실 때 생명이 흘러나오신다. 하나님의 내용,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흘러나오심이 여러분의 존재가 되는 것이 어떤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 옆구리가 찢리고, 그분의 존재가 열려서 생명이 흘러나왔다. 이제 그분의 열린 구멍과 우리의 열린 구멍이 연결될 때 우리가 입을 벌려 주님을 부를 때 그분의 내용이 우리의 내용이 된다. 그분이 우리를 채우고, 적셔서, 스며들고, 침투되어 나를 생명 자체가 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에게 기도하기를 원한다. 기도할 때 그것은 참으로 다른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3. 생명은 그리스도이고, 생명은 우리 안에 사시며 우리에게서 살아 나타나신 그리스도이다—요14:6, 골3:4, 갈2:20, 빌1:21상.

생명은 그리스도이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지만 객관적인 것이다. 생명은 우리 안에 사시며, 우리에게서 살아 나타나신 그리스도이다. 이것이 주관적이고, 체험적인 것이다.

4. 생명은 성령이다—요14:16-17, 고전15:45하, 롬8:2, 고후3:6.

5. 생명은 우리 안으로 분배되시어 우리 안에 살고 계시는 삼일 하나님이다—롬8:10,

생명의 회복을 말하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니다. 이것은 삼일 하나님의 회복이다. 과정을 거치고 완결되셔서 생명 주는 영이 되시고 우리 안으로 분배되시어 우리 온 존재의 생명이 되시는 그분의 회복인 것이다. 우리가 '생명'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우리는 하나님, 하나님의 내용, 하나님의 흘러나오심, 하나님의 분배하심, 신성한 삼일성 안의 하나님, 그리스도, 그 영을 의미하면서 말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어떤 인상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나는 정말 이것이 좋다. "생명은 내 안으로 역사해 들어오신 삼일 하나님 자신이다." 할렐루야! 오, 어떠한 생명인가! 어떻게 우리가 이 찬송을 아무 생각 없이 부르겠는가? "오 놀라운 참 생명과 평안 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네..." 우리의 눈이 열려서 그리스도가 지금 이 순간 우리 안에 사시며 그분이 바로 생명이라는 것,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가 영으로서 내 안에 사시는 분이 생명이라는 것을 알고 찬송을 불러야 한다. 우리 이번 주말에 그분이 들어오고 그분이 흘러나가게 하자. 어떤 때 외적인 것만을 관심하는 사람들은 와서 가만히 앉아 그분이 들어오는 데 어려움을 갖지만, 자기 속만을 주목하는 사람, 자기 속을 들여다보고 자기 성찰을 하는 사람들은 그분이 흘러 나가게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내가 여러분에게 권한다. 그분이 흘러 들어오게 하고, 그분이 흘러 나가게 하자.

C.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생명과 존재의 원천, 근원으로 취하기를 원하신다—렘 2:13, 시36:9상.

내가 다시 말하지만, 그분 자신을 생수로만 취하지 말고 원천으로, 근원으로 취하라. 지금부터와 영원까지 빛 속에서 그렇게 하도록 결정하라. "하나님의 나의 유일한 근원이다. 나는 근원이 아니다. 나는 모든 근원을 다 버린다. 자아여, 입을 닦쳐라. 나는 나의 자아를 거절한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근원이시다. 나는 그분이 선택한다." 모든 교회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근원이 되셔야 한다. 우리의 일의 모든 각 방면에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근원이 되셔야 한다. 청년들이 전시간 훈련에 오든 오지 않든 그것은 당신과 하나님에게 달려 있는 것이다.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당신을 오게 해서도 안 되고, 어떤 사람이 당신을 오지 못하게 막아서도 안 된다. 오직 하나님만이 당신의 근원이 되어서 그분이 원하시는 어느 곳으로든 흘러가야 한다. 다만 그분이 당신의 원천이 되기를 원한다. 그분이 흐르심으로 당신이 FTTA에 온다면 우리는 환영한다. 하나님이 흘러서 당신이 오는 것이라면 우리는 당신을 비평하지 않고, 질문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는 다만 당신이 하나님을 원천으로 삼도록 돕는 사람들일 뿐이다. 그 원천이 당신 속에 세워져 당신 안에서 흐르게 하자. 그리고 그 원천이 어디로 흐르든지 다만 그 흐름을 따라가자.

1. 하나님께서 그분의 경륜 안에서 갖고 계신 의도는 그분의 선민을 위해 그들에게 생수의 원천, 근원이 되시는 것이다.

그분을 근원으로, 원천으로 갖는 것은 기쁨이다.

2.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길의 근원이심을 보여준다. 성경에 있는 원칙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민이 그분 자신 아닌 다른 어떤 것도 근원으로 취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롬11:36, 고전8:6, 마15:13.

로마서 11장에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님께로 돌아간다고 말한다. 내가 결혼식에서 한 부부에게 주례사를 했는데, 그 프로그램을 적은 종이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님께로 돌아간다는 말씀이 있었다. 그 집회에 모인 사람들이 그것을 간증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결혼은 주에게서 나오고, 주님께로 돌아갈 것이다. 그분께로 돌아가려면 먼저 그 흐름이 그분에게서 나와야 한다.

D. 삼일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우리 존재 안으로 분배하시기 위해 과정을 거치고 완결되었다—요7:37-39, 롬8:11.

이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우리와 같은 자에게 흘러 들어오시다니!

1. 하나님의 경륜은 그분 자신을 우리 존재 안으로 분배하시어 우리의 존재가 그분의 존재로 조성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신성한 생명으로서 우리 안에 넣으심으로써만 성취될 수 있다.

이 중점이 귀하지 않은가? 이러한 모든 말씀은 이 시대의 사역의 말씀에서 온 것이다. 나는 그러한 사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그 사역을 받아들인 사람으로서 여기 서서 이것을 말한다. 이러한 말씀을 함으로 그 영이 말씀하시게 하는 것은 참으로 기쁨이다.

2.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생명으로서 우리 안으로 분배하심으로 그분의 경륜을 성취하고 계시는데, 이는 그분이 영원토록 그분 자신의 한 단체적 표현을 얻으시기 위한 것이다—계21:9-10, 22:1.

E.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배필을 통해 그분의 표현을 갖는 그분의 경륜을 성취하기 위해 증가되실 수 있도록, 생수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마셔야 한다—렘2:13, 고전12:13.

1. 우리가 생수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마실 때 그분은 우리와 하나 되시고 우리는 그분과 하나 된다—시36:8-9.
2. 우리가 하나님을 마실수록 그분은 더욱더 우리와 하나 되시고, 우리는 더욱더 그분과 하나 되고 그분의 생명과 본으로 조성된다.

이것이 생명에 속한 주의 회복이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회복 안에 있기를 원한다. 1-2 분 동안 곁에 있는 사람과 기도하고 이 메시지에 반응하기 원한다.